



◇석주스님



◇고송스님



◇지관스님



◇천운스님



◇성수스님



◇원명스님



◇무비스님

# 원로 큰스님들 奉恩寺 7일동안 감로설법

## 어린이포교 선구적 실천

석주스님 2월15일(토요일)

“나고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입니다. 깨달음의 도리를 알려면 삼독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를 찾아 길을 들고 난 뒤 저잣거리로 나와 역경 및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1923년에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6년동안 선학원에서 행자생활을 했고 범어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쳤다. 상원사 한암스님 회상에서 안거를 든 이후 금강산 마하연, 금정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2회) 은해사주지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동국대국경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의 많은 소임을 거쳤다. 행정이면 행정, 수행이면 수행, 포교면 포교 다방면에서 조용히 그리고 빈틈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석주스님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린이 포교와 역경사이다. 그 분야에 대한 선구적 역할을 했다.

## 망월사 30년 결사 동참

고송스님 2월16일(일요일)

“서두르지 말고 사비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한 고송스님은 만나는 인연마다 공부길의 핵심을 짚어 준다. 1906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나신 스님은 1920년에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이어서 1923년에 용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25세가 되던 1930년부터는 15년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수행했고 망월사 30년 결사에도 동참했다. 1954년부터는 팔공산 파계사에 주석한다. 현존 최고령의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이기도 한 스님은 망월사 결사시, 장판 한 장에 두 명씩 앉고, 저녁을 먹지 않는 하루 두 끼 중 아침은 죽, 점심만 밥을 먹는 기구에서도 정진을 느슨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불교 잡지를 만들던 만해 스님을 돕기도 했다. 지금껏 스님은 한 번도 종단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현재 스님은 파계사의 조실이다.

## 경·울·논 3장 달통

지관스님 2월17일(월요일)

“계을 지키는 삶이 부처님과의 약속이며, 불제자의 의무입니다.”

지관스님은 항상 불자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화표를 삼고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한”이라고 강조한다. 지관스님은 15세에 해인사에서 출사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63년 미산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으며, 7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이후 70년까지 해인사 강원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70~72년, 93~96년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75~98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다. 지난 1월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불교대사립> 등의 간행에도 <남북전유부울장비교연구> <미구니계율연구> <계율론> 등과 같은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해, 율종진자에도 힘썼다. 또한 1974년 펴낸 <한국 불교소의경전연구>는 한국불교학 자료의 서지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주·고송·지관·천운·성수·원명·무비스님

15일~21일까지 오전 10시30분 법왕루서

불기 2547년을 ‘신앙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가 그 첫 발걸음으로 동안거 해제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고승 대덕을 초청,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행, 참다운 원력의 법문을 듣는 ‘고승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법왕루에서 열리는 고승초청대법회에서 법문하는 석주(봉은사 조실) 고송(파계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천운(대흥사 조실) 성수(법수선원 조실) 원명(원로회의 부의장) 무비(교육원장) 큰스님은 수행과 포교에서 한국불교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이다. 이번 고승 대덕스님 초청 대법회는 새해 새롭게 신행의 기틀을 잡는 좋은 인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의 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에서의 고승초청 대법회는 욕망에 쫓기고 허상에 얽매어는 현대를 사는 중생들에게는 말도 단 법우가 될 것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올해 사부대중 모두가 청규를 생활화 할 것을 다짐했다”며 “15일 만인염불회를 결성해 기도도량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기간:2월15일~2월21일(7일간)

■법사: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여섯분, 무비스님(교육원장)

■날짜별 법사

번호	날짜	요일	법 사	비 고
1	2.15	토	석주 큰스님(봉은사 조실)	10시 30분
2	2.16	일	고송 큰스님(파계사 조실)	10시 30분
3	2.17	월	지관 큰스님(가산불교문화원장)	10시 30분
4	2.18	화	천운 큰스님(대흥사 조실)	10시 30분
5	2.19	수	성수 큰스님(법수선원장)	10시 30분
6	3.20	목	원명 큰스님(원로회의 부의장)	10시 30분
7	2.21	금	무비 큰스님(교육원장)	10시 30분

## 선지 밝은 대강백

무비스님 2월21일(금요일)

“불교를 공부하는 일이나,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은 바닷 속에서 모래알을 세는 것처럼 늦지만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10여년간에 걸쳐 80권 화엄경을 완역, 민족사에서 전12권으로 펴낸 무비스님은 특유의 선적견지와 해박한 교리해설로 정평이 나왔다. 스님은 항상 불자들에게 “사람이 부처님”이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처와 부처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때 일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해소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1958년 덕진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월정사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범어사 강원을 비롯해 제방 강원에서 강사와 강주를 지냈다.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97년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1999년 조계종 승가교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이다.

## 호남불교 중흥의 기틀

천운스님 2월18일(화요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남의 고통 나물라라 하니 세상 더 각박하지요. 있는대로 다 베풀면 또 채워지는 법입니다”

천운스님은 불교의 불모지인 호남지역에서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다. 스님은 호남에서 ‘처음’이란 단어와 익숙하다. ‘알고 가는 길’이란 포교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처음이고 찬불가를 보급하고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수련회를 만든 것도 호남에서는 선두주자에 속한다. 그만큼 스님은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끄는 수행자다. 47년 월정사에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8년 선운사에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를 수료하고 송광사, 용암사, 도감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구례 화엄사, 해남 대둔사 주지를 역임했고, 지난 97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대흥사 조실이다.

## 대중 이끌며 선풍진작

성수스님 2월19일(수요일)

“생사관 알고 수행에 몰입해야 합니다. 밝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철저한 믿음은 장애 없애줍니다”

‘깨달음 향한 수행은 하심에서 시작된다’며 30~40명의 대중들과 함께 가행 정진하는 성수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남자로 이름이 높다.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해인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세계불교도 대회에도 한국대표로 참석 세계불교 교류에도 공헌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경남 안의 황석산 황대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도 겨우 냉기가 가실 정도의 서늘한 방에서 정진하는 성수스님. 스님이 선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절약이다.

## 대구불교 활성화 견인

원명스님 2월20일(목요일)

“집착 놓아버리면 절로 행복해집니다. 불법은 실천입니다.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입니다”

원명스님은 대구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원명스님은 책상에 송곳을 꽂고 수행하던 은사 구산스님과 절구동 수좌로 유명한 효봉스님을 모셨다. 그런 만큼 수행에 있어서는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1943년 금릉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대구 보현사 주지 1978년 중앙종회의원 1979년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스님은 1981년 9교구 동화사 말사이외의 조계종 사찰들의 모임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를 창립하고,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을 설립, 1989년 불교대구교육원, 수상구정소년회관, 대구불교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광주사원연합회와 매년 지역화합법회를 열어 지역감정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2003학년도 상반기

## 봉은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요강

- 강좌명: 제39기 봉은불교대학, 제20기 봉은야간불교대학
- 대상: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불자
- 모집기간: 2547년 1월 20일~3월 13일까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개강: 불기 2547년 3월 5일 수요일
-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야간)
- 수강료: 12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 및 접수: 봉은사 포교실 (전화 516-5652)

## 봉은불교기초학당

불교를 처음 접한 이나, 오랫동안 신행활동을 하였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강남제일도량 봉은사에서는 봉은불교기초학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봉은불교기초학당은 총 12회에 걸쳐 사찰예절, 불교기본교리, 불교의 가치관, 기도와 불공의식, 제사의식, 참선 및 수행론, 수계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회 교육 / 로테이션 교육
- 장소: 보우당
- 대상: 새신자 및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
- 문의: 봉은사 새신자상담실 (전화 516-5651)